

##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직업관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The Occupational View and Perception on Career Education of Teachers  
and Parents in Elementary School

이세나(Sae Na Lee)<sup>1)</sup>

최미화(Mi Hwa Choi)<sup>2)</sup>

서강석(Kang Suk Suh)<sup>3)</sup>

###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occupational view and perceptions of career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arent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13 teachers and 523 parents. Data were analyzed by  $\chi^2$  and *t*-test.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ers' occupational view by sex, educational background, field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 and experience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occupational view by sex and 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in occupational view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in perceptions of career education. Occupations providing stable livelihood were preferred by parents, by male teachers, teachers with masters' degrees, and by teachers whose education had included inservice training.

**Key Words** : 초등학교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직업관(occupation view),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perception on career education).

### I. 서 론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성취와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개인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따라 현

<sup>1)</sup> 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sup>2)</sup> 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sup>3)</sup> 덕벌초등학교 교사

**Corresponding Author** : Sae Na Lee, Youngdong Univ.,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Email : snlee@youngdong.ac.kr

대의 직업세계 역시 급속도로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진로선택 및 변경의 요구를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진로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인식,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학교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토대로 적성, 흥미, 능력, 주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생 전반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류문용, 2006). 현대사회에서의 진로발달과정은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McDaniels & Gysbers, 1992; Super, 1990)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진로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 전문화의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충기, 2000).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교육부에 진로교육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각 시·도 교육연구원에 진로교육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정현아, 2006). 이는 진로교육은 중·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아와 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초등학교 아동들은 3·4학년이 되면 이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6학년이 되면 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다고 한다(서우석, 2000).

‘진로인식단계’인 초등학교 시기는 미래 학업 및 직업적 성취의 기초를 형성하고 성인 진로발달의 모체가 되는 중요한 성장기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Savikas, 1994; Schultheiss, Palma, & Manzi, 2002).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의 역할, 사회에서의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 사회적 행동, 책임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Zunker, 1990).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선택이나 기능훈련이 강조되어서는 안되며, 일의 세계를 학습할 기회가 주어지는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진로인식(awareness)과 오리엔테이션을 주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김경혜, 2003).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일과 직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진로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정미경·안남규, 2001).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 프로그램, 실시시간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진로지도 활동이 부진한 실정이나,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운영의 전 영역을 통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현아, 2006).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로문제를 비롯한 고민 등의 상담은 주로 담임교사가 맡고 있으며(김상변, 2003),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역시 담임교사에게 제공받고 있다(신현숙·김인아·류정희, 2003). 즉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주체는 담임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은 아동들의 진로 인식형성과 흥미, 적성의 개발을 위한 교육방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김경혜, 2003).

이렇게 진로교육에서는 담당교사의 영향이 크지만 아동기의 진로발달 및 직업선택은 가정이나 부모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자녀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정이나 부모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사실은 진로발달이론 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정철영, 1999; Holland, 1985; Hotchkiss & Borow, 1996; Mitchell & Krumboltz, 1996; O'Brien, 1996; Otto & Call, 1985; Roe, 1957). 아동의 교육 및 직업적 의사결정과 진로 인식, 진로효능감, 그리고 직업에 대한 태도 등은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의 직업관련 태도(류문용, 2006; 이준일, 2000; Splete & Freeman-George, 1985)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시기의 아동은 발달특성상 동일시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가정내에서의 진로교육 즉 부모의 직업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서인숙, 2001).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래의 진로문제의 상담자로서 부모님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김영희, 1996). 이는 자녀의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이 교사들보다 학부모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홍식, 1999).

이렇게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진로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상호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다소 왜곡된 진로의식과 진로교육관으로 인하여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올바른 진로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류문용, 2006), 교사들이

역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올바른 진로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허혜옥, 1999). 이에 최근에는 진로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사들은 아동의 진로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지도를 하고, 가정내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진로는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하나,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는 부모의 가치관과 현 시대의 진로 및 직업 전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세대 구성원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 방향과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고, 진로교육에 부모참여율을 높이고, 진로지도에 긍정적 도움을 확인하였다(진혜영·정혜영, 2006).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학부모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진로교육이 진행될 때, 비로소 학습자들은 일과 직업에 대한 바른 개념과 가치를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아동, 학부모의 인식을 연구한 이은희(1999)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없고, 좋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하였으며, 직업의 가치는 보람이라는 생각은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일에 대해서는 남교사는 돈벌이 수단으

로, 여교사는 사회봉사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진로교육에서 자녀의 적성과 능력의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직업이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은 같이하나, 직업선택의 동기와 직무수행에 중요요인에 대한 인식은 학력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직업과 진로교육에 대한 가치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어머니 보다 직업선택에 있어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며, 다양한 진로교육의 방법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혜, 2003).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진로교육에 인식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은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학습자들의 진로에 대한 조언은 교사들이 더 많이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홍식, 1999). 그러나 진로교육의 적절성에 있어서 교사들은 학년에 따른 진로교육 수준은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혜옥,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앞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직업관은 진로교육의 기초가 되는 가치관이므로, 교사와 학부모의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변인(교사 개인변인 : 성, 연령, 학력, 경력, 진로교육 연수경험/학부모 개인변인 : 성, 연령, 학력, 직업, 자녀학년)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진로

교육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5개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30명과 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580명이었다. 이 중 미회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3명의 교사와 523명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교사용 설문지의 회수율은 87%이고, 부모용 설문지의 회수율은 90%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 2. 직업관 및 진로교육 인식 질문지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의식조사(한국교육개발원, 1982)를 기초로 김경혜(2003)가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문항, 직업관에 관한 문항,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문항으로 나뉘어진다.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5문항, 직업관에 대한 질문 9문항,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문항 19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관에 대한 질문은 직업선택에 대한 가치관 4문항, 직업가치관 3문항, 그리고 직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문항은 진로교육의 목적 3문항,

<표 1> 연구 대상

교 사				학 부 모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	38	34	성별	남	117	22
	여	75	64		여	406	78
연령	30세 이하	14	12	연령	30세 이하	10	2
	31세-40세	38	34		31세-40세	307	58
	41세-50세	39	35		41세-50세	191	37
	51세 이상	22	19		51세 이상	15	3
학력	대학 졸업	60	53	학력	중학교 졸업	19	4
	대학원 이상	53	47		고교졸업	272	52
					전문대학졸업	127	24
					대학졸업	90	17
				대학원 이상	15	3	
교직경력	5년 미만	18	16	직업유형	주 부	155	30
	6년-10년	14	12		자 영 업	96	18
	11년-15년	16	14		공 무 원	55	11
	16년-20년	29	26		전 문 직	62	12
	21년-25년	19	17		서 비 스 직	49	9
	15년 이상	17	15		기 타	106	20
	합 계	113	100		합 계	523	100

진로교육 내용 4문항, 진로교육방법 6문항, 그리고 진로교육 지원체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관에 질문들간의 내적일관성 Chronbach  $\alpha = .78$ 이며, 진로교육에 관한 질문들간의 내적일관

성 Chronbach  $\alpha = .85$ 이다. 본 설문지는 교사용과 부모용으로 제작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설문지에서 인적사항과 관련된 문항들과

<표 2> 질문지 내용

질문지 종류	하위 영역	내 용	문항 수
인적 사항	교사용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연수경험,	5
	부모용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형, 자녀학년	
직업관	직업 선택	배경요인, 직업선택의 계획성 및 준거, 정보	4
	직업 가치	안정적 생활영위, 자아실현	2
	직업존엄성	직업에서 성역할, 직업귀천, 정신노동	3
진로 교육 인식	진로교육목적	진로교육개념, 필요성, 교육목표	3
	진로교육내용	정보제공, 적성과 소질, 윤리, 진학과 취업	4
	진로교육방법	수업과 연계, 현장학습, 실생활과 연계, 지역사회에서 정보수집, 학부모참여, 상담	6
	진로교육지원체제	제반시설, 상담기회, 관리자관심, 성과인식, 지역사회연계, 학습자 적성파악 노력	6

진로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문항들을 제외한 문항들의 평정은 평정자의 의견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그리고 ‘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였다. 평정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에 대한 의견에 매우 동조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적사항과 진로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문항들은 객관식으로 문항들로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의견에 해당하는 란에 표기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의견은 기타의견 란에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질문지를 완성한 후, 충청북도에 소재한 5곳의 초등학교를 섭외하여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5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각 학교에 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에 대한 응답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용 설문지는 각 학교에서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법을 설명한 가정통신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전체 설문지 회수는 우편으로 하였다.

### 4.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WIN 15.0을 사용하였다. 개인변인에 따른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t*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관한 인식중

진로교육의 목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문제 1의 검증결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개인 변인에 따른 직업관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교사의 개인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연수경험을 선정하였고, 학부모의 개인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자녀의 학년으로 선정하였다. 검증결과는 교사와 학부모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변인에 따른 교사들의 직업관 차이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사의 직업선택에 대한 가치관 중 직업선택의 계획성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5.22, p<.05$ ).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은( $M=3.43, SD=.84$ )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 $M=3.07, SD=.86$ ) 보다 직업선택은 계획보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직업선택의 기준은 성별( $F=11.46, p<.01$ )과 교직경력( $F=2.99, p<.05$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교사들( $M=2.57, SD=.81$ )은 남교사( $M=2.05, SD=.70$ )들 보다 직업선택에서 적성이나 능력보다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직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들( $M=2.94, SD=.87$ )은 교직 경력이 25년 이상인 교사들( $M=2.00, SD=.71$ ) 보다 직업선택에서 적성이나 능력보다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 중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한 직업선택 호는 교사의 성별( $F=6.51, p<.05$ ), 학력( $F=7.31,$

&lt;표 3&gt; 변인에 따른 교사들의 직업관 차이 검증

변인	구분	N	직업선택			직업가치관			직업준엄성		
			배경 요인	계획성	선택 기준	직종 정보	안정적 생활영위	자아 실현	성역할	직업의 귀천	정신 노동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① 남	38	2.45(1.03)	3.11(.86)	2.05(.70)	3.26(.72)	4.00(.70)	3.61(.89)	3.39(1.00)	2.18(.77)	2.61(1.03)
	② 여	75	2.80(.90)	3.31(.87)	2.57(.81)	3.00(.81)	3.57(.90)	3.65(.86)	3.53(.95)	2.36(.94)	3.08(.91)
	F	113	3.50	1.36	11.46**	2.88	6.51*	.08	.52	.99	6.27*
연령	① 30대	14	2.71(.73)	2.93(.92)	2.29(.83)	2.86(.86)	3.14(.95)	3.43(.76)	3.29(.83)	2.57(1.09)	3.21(.89)
	② 40대	38	2.63(1.10)	3.29(.93)	2.47(.89)	3.08(.82)	3.76(.97)	3.61(.82)	3.63(1.05)	2.29(.80)	2.79(1.04)
	③ 50대	39	2.79(.95)	3.38(.85)	2.44(.79)	3.10(.79)	3.82(.68)	3.67(.81)	3.51(.85)	2.18(.91)	3.00(.92)
	④ 50대 이상	22	2.55(.86)	3.09(.75)	2.27(.70)	3.23(.69)	3.82(.80)	3.77(1.11)	3.32(1.09)	2.36(.85)	2.82(1.01)
	F	113	.36	1.22	.40	.63	2.50	.48	.72	.71	.82
학력	① 대학 졸업	60	2.68(.85)	3.07(.86)	2.37(.78)	2.98(.83)	3.52(.91)	3.69(.85)	3.40(.94)	2.42(.87)	3.00(1.01)
	② 대학원 이상	53	2.68(1.07)	3.43(.84)	2.43(.84)	3.21(.72)	3.94(.74)	3.58(.89)	3.59(.99)	2.17(.89)	2.83(.94)
	F	113	.00	5.22*	.19	2.32	7.31**	.36	1.03	2.21	.85
경력	① 5년 미만	18	2.89(.90)	3.39(.98)	2.94(.87)a	2.72(.96)	3.83(.92)	3.78(.73)	3.33(1.08)	2.22(.73)	2.94(1.06)
	② 6-10년	14	2.93(1.00)	3.36(.63)	2.57(.85)ab	3.29(.91)	3.93(.62)	3.21(.97)	3.07(1.14)	2.36(.74)	3.07(1.14)
	③ 11-15년	16	2.69(1.14)	3.25(.86)	2.31(.70)ab	3.13(.72)	3.81(.75)	3.69(.87)	3.44(.89)	2.13(.81)	2.88(1.02)
	④ 16-20년	29	2.66(1.17)	3.28(.92)	2.31(.76)ab	3.17(.76)	3.79(.90)	3.83(.71)	3.62(.90)	2.48(1.06)	2.97(.98)
	⑤ 21-25년	19	2.47(.77)	3.26(.93)	2.32(.74)ab	3.21(.71)	3.53(1.02)	3.58(1.12)	3.42(1.02)	2.16(.90)	2.79(.98)
	⑥ 25년 이상	17	2.53(.51)	2.88(.78)	2.00(.71)b	3.00(.61)	3.41(.80)	3.53(.80)	3.88(.70)	2.35(.93)	2.88(.78)
	F	113	.62	.74	2.99*	1.18	.93	1.13	1.34	.51	.16
연수	① 없음	99	2.69(.95)	3.27(.85)	2.39(.79)	3.11(.78)	3.80(.78)	3.63(.86)	3.45(.96)	2.31(.84)	2.93(.97)
	② 있음	14	2.64(1.01)	3.00(.96)	2.43(.94)	2.93(.83)	3.14(1.17)	3.71(.91)	3.71(.99)	2.21(1.19)	2.86(1.03)
	F	113	.03	1.21	.02	.66	7.52**	.13	.89	.15	.07

\* $p<.05$  \*\* $p<.01$ 

$p<.01$ ), 그리고 연수경험( $F=7.52$ ,  $p<.01$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자교사들( $M=4.00$ ,  $SD=.70$ )은 여교사들( $M=3.57$ ,  $SD=.90$ )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호하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 $M=3.94$ ,  $SD=.74$ )은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 $M=3.52$ ,  $SD=.91$ )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들( $M=3.80$ ,  $SD=.78$ )은 진로교육에 관한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들( $M=3.14$ ,  $SD=1.17$ )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준엄성에 대한 가치관 중 정신노동의 선호 인식은 교사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6.27$ ,  $p<.05$ ). 여교사들( $M=3.08$ ,  $SD=.91$ )은 남교사들( $M=2.61$ ,  $SD=1.03$ ) 보다 정신노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변인에 따른 학부모들의 직업관 차이

학부모의 개인변인에 따라 직업관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부모들의 직업선택 가치관중 직종정보에 대

<표 4> 변인에 따른 학부모들의 직업관 차이 검증

변인	구분	N	직업선택			직업가치관			직업존엄성		
			배경 요인	계획성	선택 기준	직종 정보	안정적 생활영위	자아 실현	성역할	직업의 귀천	정신 노동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① 남	117	2.92(1.01)	3.25(1.01)	2.56( .93)	1.05( .10)	.85(.08)	.99(.09)	1.11(.10)	.90( .08)	3.15( .88)
	② 여	406	2.99(1.01)	3.22( .93)	2.60( .97)	.88( .04)	.79(.04)	.91(.05)	.99( .05)	1.02( .05)	3.08( .94)
	F	523	.43	.06	.16	4.65*	.48	.62	8.70**	.80	.43
연령	① 30대	10	2.80( 7.9)	2.60( .70)	2.80( .92)	2.80(1.03)	3.90( .88)	3.30( .95)	3.80( .63)	3.30(1.06)a	3.40( .97)
	② 40대	307	3.01(1.01)	3.20( .94)	2.59( .96)	2.70( .90)	4.04( .77)	3.25( .92)	3.53(1.04)	2.36( .94)b	3.12( .90)
	③ 50대	191	2.94(1.03)	3.32( .96)	2.56( .94)	2.76( .96)	3.88( .86)	3.27( .95)	3.42(1.03)	2.59(1.05)ab	3.05( .97)
	④ 50대 이상	15	2.87( .64)	3.20( .94)	2.73(1.16)	2.53( .83)	3.87( .74)	3.27( .96)	3.40( .91)	2.73( .80)ab	3.00(1.00)
	F	523	.39	2.19	.33	.44	1.63	.03	.76	4.81**	.61
학력	① 중학 졸업	19	2.84( .96)	2.89( .81)	2.63(1.07)	2.79(1.27)	3.79(1.13)	3.58( .90)	3.74( .93)	2.69(1.00)	3.21(1.08)
	② 고교 졸업	272	3.03(1.00)	3.22( .96)	2.53( .98)	2.62( .93)	4.00( .81)	3.15( .95)	3.51(1.03)	2.55(1.03)	3.18( .93)
	③ 전문대학	127	3.00(1.00)	3.29( .90)	2.55( .89)	2.85( .80)	4.00( .72)	3.32( .82)	3.45(1.02)	2.43( .95)	3.10( .86)
	④ 대학졸업	90	2.90(1.06)	3.20( .97)	2.80( .99)	2.76( .92)	3.87( .82)	3.34( .95)	3.41(1.03)	2.27( .90)	2.90( .92)
	⑤ 대학원 이상	15	2.53( .99)	3.40(1.12)	2.60( .91)	3.07(1.16)	4.27( .80)	3.73(1.03)	3.73(1.28)	2.47(1.19)	2.53( .99)
	F	523	1.14	.87	1.41	2.02	1.24	2.80	.69	1.63	3.08
직업유형	① 주부	155	3.03(1.02)	3.12( .91)	2.56( .92)	2.79( .87)	3.97( .84)	3.19( .89)	3.50(1.01)	2.59(1.01)	3.03( .97)
	② 자영업	96	2.94(1.02)	3.22( .91)	2.71(1.04)	2.72( .97)	3.93( .82)	3.24(1.00)	3.43(1.05)	2.52(1.07)	3.14( .94)
	③ 공무원	55	2.93(1.02)	3.55( .98)	2.71( .98)	2.84(1.00)	4.09( .65)	3.31( .94)	3.51(1.05)	2.33( .79)	2.96( .92)
	④ 전문직	62	2.95(1.17)	3.21(1.04)	2.39( .93)	2.76( .92)	3.97( .89)	3.26( .90)	3.47(1.10)	2.42(1.02)	3.18( .90)
	⑤ 서비스직	49	3.16( .96)	3.22(1.03)	2.47( .92)	2.86( .89)	3.94( .75)	3.27( .91)	3.78( .96)	2.39( .89)	3.29( .91)
	⑥ 기타	106	2.90( .89)	3.25( .92)	2.62( .97)	2.60( .93)	4.00( .80)	3.34( .96)	3.42(1.01)	2.42(1.03)	3.09( .87)
F	523	.61	1.70	1.22	.77	.33	.38	.92	.87	.95	
자녀학년	① 1학년	19	2.89( .99)	3.37(1.07)	2.58( .84)	2.74( .73)	4.21( .71)	3.32( .95)	3.58( .96)	2.79( .98)	2.89( .88)
	② 2학년	44	3.09( .96)	3.02( .88)	2.70(1.00)	2.82( .92)	4.14( .77)	3.34( .91)	3.36(1.08)	2.50( .95)	3.16( .75)
	③ 3학년	46	2.91( .98)	3.02( .93)	2.70( .92)	2.67(1.01)	4.00( .84)	3.22( .81)	3.52(1.03)	2.37( .88)	3.09( .81)
	④ 4학년	143	3.00(1.00)	3.14( .95)	2.50( .90)	2.69( .80)	3.86( .79)	3.33( .88)	3.57(1.02)	2.45( .98)	2.98( .94)
	⑤ 5학년	136	2.93(1.07)	3.45(1.00)	2.54(1.05)	2.74(1.03)	4.09( .86)	3.19(1.03)	3.48(1.08)	2.42(1.09)	3.20( .96)
	⑥ 6학년	135	3.00( .98)	3.22( .88)	2.64( .95)	2.71( .94)	3.90( .77)	3.22( .93)	3.44( .98)	2.54( .95)	3.13( .97)
F	523	.27	2.69	.62	.16	2.08	.45	.41	.72	1.04	

\* $p < .05$  \*\* $p < .01$

한 인식( $F=4.65, p < .05$ )과 직업에서 성역할 인식( $F=8.70, p < .01$ )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들( $M=1.05, SD=.10$ )은 어머니들( $M=.88, SD=.04$ ) 보다 직업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존엄성에 대한 가치관 중 아

버지들( $M=1.11, SD=.10$ )은 어머니들( $M=.99, SD=.05$ ) 보다 직업에서 성역할이 동등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4.81, p < .01$ ). 연령이 30대 학부모들( $M=3.30, SD=1.06$ )은 40대 학부모들( $M=2.36, SD=.94$ ) 보다 현실적으로 직업



에는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문제 2의 검증결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업선택에서 배경요인의 영향력( $t=2.85, p<.01$ ), 직종에 대한 정보( $t=-3.96, p<.001$ ),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 선호( $t=3.07, p<.01$ ), 그리고 자아실현으로서 직업( $t=4.00, p<.001$ )의 인식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 $M=2.98, SD=1.00$ )은 교사들( $M=2.68, SD=.96$ ) 보다 좋은 직업선택에서 배경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M=3.09, SD=.79$ )은 학부모들( $M=2.72, SD=.92$ ) 보다 직종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 $M=3.98, SD=.81$ )은 교사들( $M=3.72, SD=.86$ )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 $M=3.64, SD=.87$ )은 학부모들( $M=3.26, SD=.93$ ) 보다 일의 목적이 자아실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문제 3의 검증결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진로교육목적, 진로교육내용, 진로교육방법, 그리고 진로교육의 지원체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를 살펴보면, 진로교육목적 인식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차이가 없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진로교육개념( $\chi^2=.21, p>.05$ ), 진로교육의 필요성( $\chi^2=2.84, p>.05$ ), 그리고 진로교육의 목표( $\chi^2=2.01, p>.05$ ) 인식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7>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부모들은 진로교육의 내용( $t=-4.66, p<.001$ ), 교육방법( $t=-5.66, p<.001$ ), 그리고 지원체제의 중요도 인식( $t=-2.73, p<.01$ )에서 차이를 보였다( $t=-6.07, p<.001$ ). 교사들( $M=16.45, SD=2.32$ )은 진로교육에서 직업세계의 정보제공, 적성 및 소질 발견과 신장, 건전한 직업윤리 형성, 진학 및 취업준비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 $M=15.13, SD=2.82$ )들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M=22.65,$

<표 5>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직업관

영역	내용	교사(N=113)		부모(N=523)		t
		M	SD	M	SD	
직업 선택	배경요인의 영향	2.68	.96	2.98	1.00	2.85**
	직업선택의 계획성	3.24	.87	3.23	.95	-.10
	직업선택의 기준	2.40	.81	2.59	.96	1.95
	직종에 대한 정보	3.09	.79	2.72	.92	-3.96***
직업가치관	안정적 생활 영위	3.72	.86	3.98	.81	3.07**
	자아 실현	3.64	.87	3.26	.93	-4.00***
직업존엄성	성역할 동등성	3.49	.96	3.49	1.03	.06
	직업의 귀천	2.30	.89	2.47	.99	1.71
	정신노동 선호	2.92	.97	3.10	.93	1.81

\* $p<.05$  \*\* $p<.01$  \*\*\* $p<.001$

<표 6>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진로교육목적 인식

영역	내용	교사(N=113)		부모(N=523)		X <sup>2</sup>
		N	%	N	%	
진로 교육 개념	진로탐색 활동	50	44.2	282	53.9	.21
	진로선택능력 육성	54	47.8	163	31.2	
	직업·진로정보제공	3	2.7	33	6.3	
	진로상담 활동	5	4.4	18	3.4	
	기 타	1	.9	27	5.2	
진로 교육 목적	진로선택 조력	93	82.3	405	77.4	2.84
	유용한 지식과 기능습득	15	13.3	68	13.0	
	유능한 기능보유자 육성	1	.9	9	1.7	
	대입·취업 경쟁의 개선	1	.9	9	1.7	
	기 타	3	2.7	32	6.1	
진로 교육 목표	적성발견기회 제공	80	70.8	311	59.5	2.01
	다양한 능력 육성	7	6.2	68	13.0	
	미래 창조능력 육성	16	14.2	83	15.9	
	특기 개발·신장	4	3.5	40	7.6	
	기 타	6	5.3	21	4.0	

\*p<.0

<표 7>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진로교육내용, 방법, 지원체제 인식

영역	교사(N=113)		부모(N=523)		t
	M	SD	M	SD	
진로교육내용	16.45	2.32	15.13	2.82	-4.66***
진로교육방법	22.65	3.46	20.27	4.16	-5.66***
진로지원체제	17.24	4.36	16.11	3.92	-2.73**
합 계	56.34	7.28	51.50	7.76	-6.07***

\*p<.05 \*\*p<.01 \*\*\*p<.001

SD=3.46)은 진로교육에서 수업계획과 상호연계, 견학이나 작업장면을 제시, 지역사회에서 정보수집, 실생활과 관련지어 지도, 학부모 참여, 그리고 상담교사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방법을 학부모(M=20.27, SD=4.16)들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M=, SD=)은 진로교육에서 학습자의 적성과약을 위한 노력, 제반시설 및 도구구비, 상담기회 마련, 관리자의

관심, 지역사회와 연계, 그리고 교육의 성과 인식에 대한 지원체제를 학부모(M=, SD=)들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성별, 학력, 교직경력, 그리고 진로교육 현직연수 경험에 따라 직업관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기준,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한 직업 선호, 그리고 정신노동 선호 정도에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 따라 직업선택의 계획성과 안정적 생

활영위를 위한 직업선택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교직경력에 따라 직업선택기준에 차이를 보였고,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들보다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한 직업선택에 차이를 보였다. 즉 여교사들은 남교사들보다 직업선택에서 적성이나 능력보다 보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신노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교사들은 남교사들보다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은 대학을 졸업한 교사들보다 직업선택은 계획적이기보다 우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들은 경력이 25년 이상인 교사들보다 직업선택에서 적성이나 능력보다 보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한 현직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현직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에 대한 현직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직업선택에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교사들은 직업에서 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신노동을 선호하는 반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들이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의 선호한다는 결과는 한국여성들은 전문성을 살린 정신노동의 직업을 선호한다(임순희, 1997)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신노동 선호는 현대사회의 취업 풍토가 근로의 소중함보다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여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은희, 1999)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교사들은 직업에서 보수를 중요시하는 하는

반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가 남교사들 보다 낮다는 결과는 한국여성들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김양희, 1998; 임순희, 1997)와 다소 상반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많은 한국여성들의 구직의 첫번째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여성들은 많은 직업들 중 특히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신분보장과 직업 안정성’이 좋고, ‘남녀 차별’이 다른 직장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교사들 역시 많은 한국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직업의 의미를 경제적인 이유를 추구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복잡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희(1999)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직업을 가치를 보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나, 남교사들의 경우는 일을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여교사의 경우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여교사들은 직업의 경제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평생직업과 직업안정성 보다는 자아실현, 보람, 사회기여 등과 같은 의미도 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직경력 적은 교사들은 직업선택에서 보수의 중요성을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들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직업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천명섭·김민주, 1993)의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현재의 급여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에 대한 긍지와 바람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였다. 교직경력을 기준으로 교사발달단계를 구분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임용후 교직경력 5년까지의 기간을 생존 및 초기교수 단계라고 한다(강연옥, 2001).

이 시기의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들은 자신의 생존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며, 자신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의 문제, 미성숙한 학습자들을 매일 대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비교적 낮은 사회적 대우 등 직무 내·외적으로 다른 전문직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초기교수단계 교사들의 직업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일수록 교사들의 권위나 사명감이 향상되어 교육활동에 대한 지각이나 직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직업안정성과 실제적인 처우향상 등이 교사들의 직업의식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초기교수단계에서 교사들은 직업선택에서 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직업선택에서 적성이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에 관한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들보다 직업선택에 대한 조언을 할 때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에 관한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가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들보다 보수적인 진로·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는 진로지도 능력배양은 물론이고 미래 직업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진로교육의 방향과 생애교육과 진로탐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김선진, 2007), 이런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를 경험한 교사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직업관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성별에 따라 직종 정보와 직

업에서 성역할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직종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에서 성역할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의 학부모들은 40대의 학부모들보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직업 종류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의 사회활동의 범위가 어머니들 보다 넓으며, 아버지들의 사회변화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어머니들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부들의 직업관을 조사한 연구(정광원, 1997)에서는 주부들이 비교적 보수적이고 폭이 좁은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직업안정성과 사회적 대우 등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도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성의 우선적인 역할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커져 직업활동 및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김양희, 1998). 따라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직종에 대한 정보에 덜 민감하며, 이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에서도 덜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보다 직업에서 성역할이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들의 취업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여성고용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직업현장에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암묵적인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직이 아닌 경우,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단순 반복적이며 보조적인 업무를 맡으며 저임금으로 낮은 직위에 머물러 있다(김양희, 1998; 천명섭·최병우, 2001).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에 비해 여성으로서 이런 여성들의 고용 실태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서 성역할이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0대의 학부모보다 40대의 학부모들이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더 높은 것은 최근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직업가치관이 현실중심의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의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서구사회나 가까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장홍근·이동임·오영훈·최지희·정윤경·이기홍·서우석, 2007).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보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청년 실업, 불안정한 고용상황, 소득격차의 심화 등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의 직업관이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직업관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직업선택에서 배경요인의 영향력, 직종에 대한 정보,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한 직업과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 보다 직종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보다 배경이나 환경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직업선택에서 배경요인이 노력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교사들은 직종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인식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을 선호한다. 이는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더 보수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혜(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부모들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전문직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조찬성(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장홍근 외, 2007; 정광원, 1997).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인의 직업윤리의식을 아직도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의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사회보다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능력보다 학연과 지연과 같은 연고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경제적 보상과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현실중심의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지식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복지정책의 후퇴, 그리고 소득격차의 심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진로교육의 목표 인식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교 교사들은 진로교육 내용, 진로교육방법, 그리고 진로교육의 지원체계의 중요도를 학부모들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과 부모들의 진로교육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김경혜, 2003; 이은희, 1999; 최홍식, 1999)들과 일치한다. 이는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진로교육내용, 방법, 지원체계에 대해서 형식적 교육을 간접적으

로 인식하는 부모들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들이 진로교육 전반에 교사들보다는 그 인식이 낮지만, 단순히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교사들과 부모들은 진로교육방법 인식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실생활과 관련지어 진로교육을 하는 방법'의 중요성과 진로교육지원체계 인식에서 '제반시설과 도구의 구비'와 '교육성과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 부모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생인 것을 감안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진로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진로교육의 성과 역시 교사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진로인식단계의 진로교육은 진로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하거나 교육하기 보다는 실생활과 관련지어, 학습자 주변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들의 개인변인에 따라 직업관 인식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직업이 다변화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교사들은 학습자의 관심과 적성, 그리고 발달연령에 맞는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연찬과 교사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성별과 연령에 따

라 다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못지않게 학습자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학부모이다. 학부모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자녀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많은 대화와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일관된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는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학습자의 올바른 진로인식과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일관된 진로교육의 방향이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가정에 소개하고, 부모의 건전한 직업관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인사 활용은 매우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사 못지않은 학부모들이 실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연옥(2001). 교사발달과정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2003). 초등학교 직업관 및 진로교육에 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범(2003).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진(2007). 초등학교에서 진로상담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구안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8). 여성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2), 97-117.
- 김영희(1996). 초등학생들의 진로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상담*. 서울 : 동문사.
- 류문용(2006). 배경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우석(2000).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방향. *인천교육대학 대학생활연구*, 12, 167-188.
- 서인숙(2001).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직업관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 김인아 · 류정희(2003). 중 ·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상담 실태와 학교심리학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1), 53-77.
- 이은희(1999).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비교.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일(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희(1997). 남북한 여성의 가치관. *통일논총*, 15, 19-52.
- 장홍근 · 이동임 · 오영훈 · 최지희 · 정윤경 · 이기홍 · 서우석(2007).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 국제비교 맥락에서 본 한국인의 직업의식*.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정광원(1997). 한국인이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특히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주부들의 직업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 119-152.
- 정미경 · 안남규(2001). 초등실과교과에서의 진로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7(3), 103-125.
- 정철영(1999).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진로교육연구*, 10, 227-260.
- 정현아(2006).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집단 상담이 진로 인식도와 성취동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찬성(2000).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희망진로 분석. *실과교육연구*, 6(1), 113-124.
- 진혜영 · 정혜영(2006).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가정 연계 초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0(2), 497-513.
- 천명섭 · 김민주(1993). 교사들의 직업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7, 245-264.
- 천명섭 · 최병우(2001). 우리나라 여성의 직무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3(1), 173-201.
- 최홍식(1999).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혜옥(1999).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Hotchkiss, L., & Borow, H.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 on work and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and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281-334). San Francisco : Jossey-Bass.
- McDaniels, C., Gysbers, N. (1992). *Counseling for Development : theory, resources, and practice*. San Francisco : Jossey-Bass.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33-280). San Francisco : Jossey-Bass.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Otto, L. B., & Call, V. R. A. (1985). Parental influence on young people'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1), 65-69.
- Roe, A. (1957). *The psychology of occupation*. New York : John Wiley.
- Savikas, M. L. (1994) Measuring career development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4-24.

Schultheiss, D. E. P., Palma, T. U., & Manzi, A. J. (2002).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 A qualitative inqui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Splete, H., & Freeman-George, A. (1985). Family influence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young adul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1), 55-64.

Super, D. E. (1990).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San Francisco : Jossey-Bass.

Zunker, V. G. (1990). *Career Counseling : Applied concept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 Brooks.

---

2009년 8월 18일 투고, 2009년 10월 26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